

지역 건설공사액 1년만에 ‘반등’…계약액은 부진

ECONOMY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통계청 ‘2024년 건설업조사 잠정 결과’ 발표

전년비 2.5%·4.9% 각각 증가…전국 300조 회복
건설계약액…광주 ‘전국 하위권’·전남 7.3%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공사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수는 광주는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하며 회비가 엇갈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건설공사액은 5조4590억원으로 전년(5조3250억원)과 견줘 2.5%(134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공사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수는 광주는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하며 회비가 엇갈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건설공사액은 5조4590억원으로 전년(5조3250억원)과 견줘 2.5%(134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2022년 6625개, 2023년 6677개, 2024년 6822개로 각 0.8%, 2.8% 늘었다.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액 비율을 보면 지난해 광주는 건설업(종합·전문) 전반에서 전년과 견줘 마이너스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의 종합건설업 공사액은 2조1100억원이었는데, 이 중 본사 소재지 공사액은 5820억원(27.6%)이었다. 전년(1조9960억원 중 6060억원·30.4%)과 견줘 2.8%p 떨어진 수치다. 전문업종건설업도 2023년 48.9%(3조3290억원 중 1조627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4.7%p 줄어든 44.2%(3조3490억원 중 1조4800억원)에 그쳤다. 전남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에서의 비중은 46.0%(5조9480억원 중 2조7370억원)로 42.9%를 기록한 전년(5조6220억원 중 2조4110억원)보다 3.1%p 늘었다. 전문업종건설업은 2023년 55.9%(10조1770억원 중 5조6840억원)에서 1.0%p 줄어든 54.8%(10조6310억원 중 5조8280억원)였다. 건설계약액에서는 광주의 감소폭이 5대 광역시 중 가장 컸다. 지난해 광주의 건설계약액은 2조7540억원으로 1년 전(7조8450억원)과 비교해 무려 64.9% 감소했다. 5대 광역시(부산 10.6%, 대구 0.3%, 대전 -14.4%, 울산 -44.6%)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남의 건설계약액은 12조7600억원을 기록, 전년(13조7590억원)보다 7.3%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건설계약액이 307조원으로

로 1년 만에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2021년(315조원), 2022년(338조원) 수준에는 못 미쳤다.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국내 공사종류별로는 건축(9.5%), 토목(130%)은 증가했고, 산업설비(-35.1%), 조경(-15.5%)은 감소했다. 건축 부문에서는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이, 토목 부문에서는 택지조성, 도로터널 등 계약이 늘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0% 증가했고, 민간부문도 17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액은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승남 잡코리아 창업주 특강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잡코리아 창업주 김승남 회장을 초청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를 주제로 제1695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승남 회장은 현재 잡코리아 회장 겸 조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좋은 성공’, ‘고맙습니다’ 등이 있다. 이날 특강에 앞서 김 회장은 후배 경영인들에게 도시를 기증하며 성공을 응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성공의 가치, 관, 세상의 변화, 성공과 실패 등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담은 강연을 이어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잡코리아를 매각하고 다른 회사를 만들 때 얻은 수익의 절반을 직원들에게 나눠 직원들을 수심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 일은 모범사례였다”며 “후배 경영인들에게 좋은 귀감과 멘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쌀의 날’ 아침밥먹기 캠페인 전남경찰청서 전남쌀로 만든 간편식·즉석밥 나눔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경찰청에서 제11회 쌀의 날(8월 18일)을 맞아 ‘경찰가족과 함께하는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성호 농협 전남본부 부본부장, 차상훈 NH전남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과 모상도 전남경찰청장, 박상미 전남도농식품유통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근길 전남경찰청 임직원들에게 전남대표품종 ‘새청무쌀’로 만든 삼각김밥과 즉석밥 등 아

침 간편식을 나누며 쌀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유지에 필수인 아침밥먹기의 효과를 홍보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협중 양회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농심전심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아침밥먹기 운동을 통해 10대 추진과제인 ‘밥심전심’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송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경찰청에서 제11회 쌀의 날(8월 18일)을 맞아 ‘경찰가족과 함께하는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전남MICE얼라이언스 회원 선정 눈길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내외 행사 유치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전남MICE얼라이언스’의 신규회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남MICE얼라이언스는 회의(Meetings), 인센티브 여행(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 등 MICE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컨벤션센터, 호텔, 관광지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의 대형 회의장과 전시장, 여수세계박람회특구 내 특급호텔과 관광명소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K-MICE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번 얼라이언스 가입을 계기로 전남도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제회의, 전시, 박람회, 기업행사 등 국내외의 MICE 행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MICE 개최 장소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얼라이언스 가입을 계기로 전남 MICE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광주신세계 “대왕 솔티드 에그타르트 맛보세요” (주)광주신세계가 분관 지하1층에서 남다른 두께와 맛을 자랑하는 대왕 솔티드 에그타르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소울티’ 팝업 매장에서는 무항생제 계란과 천연 바닐라빈을 이용, 오븐에 구운 대왕 솔티드 에그타르트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투싼·니로 HEV 인기…라인업 확대 등 수요 대응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87만 821대)뿐 아니라 기아(64만 4324대)를 더한 성과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친환경차 시장 진출 이후 11년 만인 2022년 누적 판매 50만대를 돌파했고 2년 뒤인 2024년에는 100만대, 지난해에는 15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만 634대로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

으며 이후 2022년 18만 2627대, 2023년 27만 8122대, 2024년 34만 6441대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2만 1565대로 전년 동기(18만 4346대)보다 20% 넘게 증가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13만 8502대를 팔았고 전기차가 37만 4790대, 수소전기차 1853대가 뒤를 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투싼 하이브리드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202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7월까지 19만 7929대가 판

매됐다. 다음으로는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 2941대), 아이오닉 5(12만 6363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8만 3106대를 판매했다. 이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 91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 638대) 순이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시장에 플래그십 대형 SUV인 디올 뉴 팔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콤팩트 EV 세단인 EV4 등 다양한 친환경차를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기아는 현대차 엘라메다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양산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중국 ESS 기업 TWS사
광양만권 투자방향 검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 TWS사가 광양만권을 방문해 투자방향을 내비쳤다고 24일 밝혔다.

TWS사는 지난 3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에너지저장포럼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으로 발굴된 기업으로, 광양만권에 ESS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방문단은 경제청 관계자와 함께 울촌산단과 세풍산단 등 ESS 클러스터 개발현장을 둘러봤다.

레이몬드 룽 TWS 회장은 “광양만권의 이차전지·ESS 제조 등 신에너지 산업과 광양항의 지리적 이점, 국제 물류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광양만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청은 방문단에 전남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523MW 규모 중앙계약 시장 유치 등 ESS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ESS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충근 광양경제청장은 “광동성 500대 제조기업이자 ESS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TWS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투자가 성사될 경우, 생산공장 건설과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로또

2

8

13

16

23

28

1186회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19억9000만원

제11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8, 13, 16, 23,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86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52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26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70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2만8810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기청, 함평천지시장서 소비 끌어올린다

유관기관과 침수피해 상인 격려…구매행사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형상점가 일대에서 소비진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전남중기청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기

술보중기금 호남지역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함평천지시장은 지난 3월 집중호우로 모든 점포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16일까지 임시 휴장했다가 복구를 거쳐 17일부터 재개장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은

고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생필품·농수축산물 구매 및 점심식사를 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촉진 분위기를 이어갔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시설복구는 어느정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은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 유관기관, 공공기관과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